

月刊

정치의 **시림**

곧 독자들 결의로!



목숨이 두 개인가? 스마트팜 건설현장 고소작업자 불안 안전 무방비 노출

관련기사 2·3면

‘스마트팜(Smart Farm)’ 열풍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은 깜깜한 밤에도 인공광선으로 작물을 키운다. 사계절 내내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계절을 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경북은 지금 스마트팜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있다. 전국 최대규모의 상주스마트팜 혁신밸리, 영양 예천 등 일선 시군마다 스마트팜 조성에 한창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팜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자들의 안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여기에 스마트팜 도입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은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스마트팜 조성에 371억 원을 배정했다. 기후 위기 속 농업 자동화 시설인 ‘스마트팜’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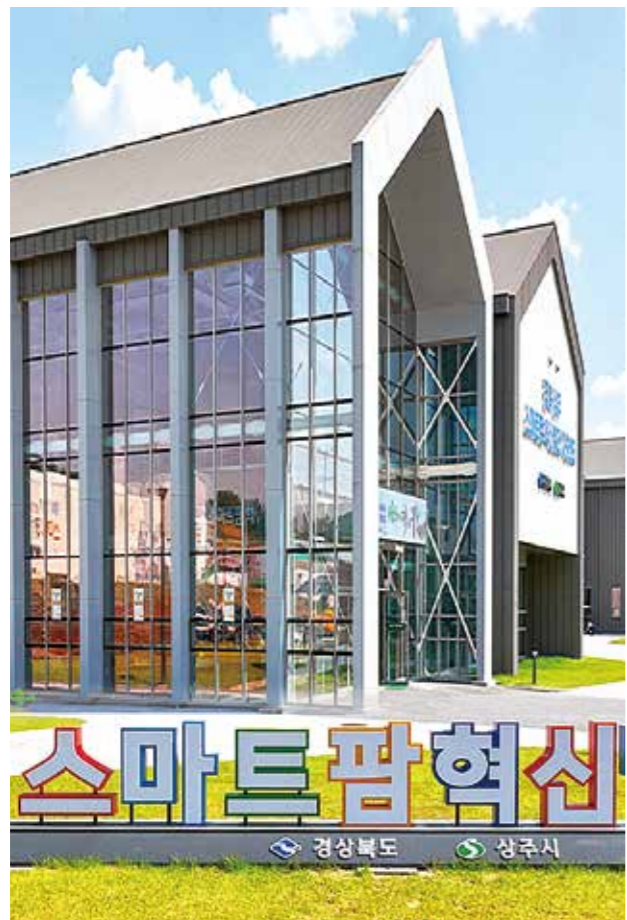
상주 스마트팜 조성사업 52건 시설 하자 발생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 사업장서 총7차례 대규모 하자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無 비판...

스마트팜은 스마트(smart)와 농장(farm)의 합성어다. 전통 경작 방식의 농·축·수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등 IT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일컫는 신조어다.

스마트팜 건설현장 안전 뒷전
스마트팜 건설현장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위험을 안고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고소작업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미래농업의 핵심산업 스마트팜 건설이 한창이다. 일부 스마트팜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건설현장 현장소장 A씨는 안전망 설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해도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농장의 높이는 대개 6m, 지붕높이까지는 약 8m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와 안전장비를 요구된다. 스마트팜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 안전망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낙상사고는 철골조립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작업장에서 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실수로 낙상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고는 낙상사고가 90%에 이른다. 이 경우 사망 또는 장애사고로 이어진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건설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도면에 기재해야 된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보호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팜 농장이 건설되는 현장은 경북 상주, 강원도 양구, 충청도 논산, 전라도 신안 등 여러 곳이 있다. 스마트팜 농장은 지역특성상 조금씩은 다르지만 건설의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 대개 한곳의 스마트팜 건설 비용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관계자는 “고소작업은 꼭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등으로 배제되고 있다”라며 농어촌 공사나 해당 지자체는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 407건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총 407건의 시설 하자가 발생했다. 이 사실은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밝혔다. 그는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이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실제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 대규모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4300억 원 규모 혁신밸리 스마트팜과 2600억 원 규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해 총 6900억 원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전국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로 선정됐다.

강원 평창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청년농과 농업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농장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07건 하자 중 전북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만 276건 하자가 발생해 전체 하자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에서 52건,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에서 각각 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 평창과 충북 제천에서도 총 3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 의원은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에서는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85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장은 하도급사 8곳 중 7곳이 전북 지역의 하도급업체로 선정.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하자가 230건으로 김제 전체 하자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의 요청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이 진행. 선정된 업체들 대부분이 해당 실적이 없던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사업장에서 총 7차례의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수백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농어촌공사는 943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챙기는 한편, 하자 문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13개 지역 중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평균 13.7%에 불과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농가 61% 교육 無
정부가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스마트팜 도입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은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스마트농업 확산에 대응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농경연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펴낸 ‘2021년 스마트팜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요약보고서’에 기반해 국내 스마트팜업 시설한 농가 1243곳의 현황을 파악했다. 현황조사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한 농가 61.1%가 최근 3년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다. 이같이 응답한 농가는 시설원예(64.5%)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노지채소(61.9%), 축산(56.8%), 노지과수(48.6%) 순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팜 농가가 겪는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설치 관련 비용 부담(32.1%)이었다. 하지만 기술과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30.8%)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첨단기술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보고서 분석 결과가 시사하듯 농업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기술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농 등 스마트농업 예비 창업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확대·정착을 위해 이미 시설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의 도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도농가 교류 확대, 농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들은 스마트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도농가 실습 및 견학(3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가간 관계형성 지원(11.1%)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경연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마중물로서 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개별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초기 구상점 역할을 공공기관 등이 맡아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 상반기 929명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3년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 산업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처벌 중심의 법보다 안전의식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서 잘 나타난다.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 뒤이어 GS건설(614명),

년 저조하다.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067억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2022년 신규사업 4개소(양구·영천·신안·장수)에 2년간 8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87억8100만원, 집행률은 11%에 그쳤다.

2023년 신규사업 3개소(삼척·김제·밀양) 역시 30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8억2700만원, 집행률은 2.8%에 그쳤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3개소(태백·괴산·의성)에는 6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4800만원, 집행률은 0.7%에 불과하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한 지적은 반복돼 왔다.

국회 농해수위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이 지적됐다.

2020년 집행률은 평균 5%, 2021년 집행률 평균 22.3% 등 사업 집행률이 미흡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 시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021, 2022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팜 조성사업 집행 부진에 대한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



이 안 되고 있다”고 고집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개선돼야 하고,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농업 확산은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15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돼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법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해마다 농식품부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사업 집행 부진과 과다한 이월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농업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매년 지급하는 대금비율인 연부율을 조정해 예산집행을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애초 사업 기간을 2년차 사업·연부율 50%:50%에서, 3년차 사업·연부율 50%:40%:10%로 조정했다.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격렬로 협의회를 추진해 예산 집행과 조성 현황, 애로사항 파악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업 기간과 연부율 조정이 2023년 말에 변경되다 보니 아직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사업부터 관련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용 기자

영양군 전국 첫 '임대형 산채 스마트팜' 조성...

영양군 일월면 일대 2027년까지 120억원 투입 전국 최초 임대형 산채스마트팜 건설... 부자 농촌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 '선진 농도 경북' 위상을 맛껏 떨치고 있다. 지역 경제 새로운 활력으로 넘쳐난다. 현재 청년과 은퇴자 중심의 스마트팜은 역대 최악의 가뭄과 극한 폭우 등 이상 기후를 이겨내면서 미래 농업·농촌의 새 희망으로 떠올라 스마트팜 전성시대가 됐다.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 국내 농업 해결책

스마트팜이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농작물의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과 농촌 노동력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결국 스마트팜을 활용, 선제적으로 공급 불안성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도 올해 첨단농업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올해 5662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확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농가경영안정 △그린바이오를 미래 경북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국비 5153억원을 확보했다.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시설원에 스마트화 50% 달성을 위해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 등 27개 사업에 356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하지만 폭염, 장마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농산물까지 번지고 있다.

의 운영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혁신밸리의 운영 불안정성과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남 도의원은 약 1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유관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및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중앙정부의 계속적 지원 확보 등을 요청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 이천지 부근인 상주 사벌면 엄암리 일대 42.7ha에 조성 중인 대규모 단지다. 이 사업에는 터 매입과 건물 준공 등 기반공사에만 지금까지 국비 670억원, 도비 218억원, 시비 448억원 등 모두 1336억원이 투입됐다. 조직 인력은 15명(상주시 8명, 경북도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북도도 혁신밸리 단지에서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기능을 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열고 내년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구호는 '청년! 중심되는 스마트농업 실현'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606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에 착공했다. 스마트농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및 농업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 총 조성면적은 42.7ha(13만평)이다. 핵심시설로는 청년창업 보육시설 2.27ha(교육형 온실 0.17, 경영형 온실 1.91), 임대형 스마트팜 5.75ha, 실증온실 2.14ha 및 지원센터 0.45ha(2층, 연면적)로 구성됐다.

상주시에 조성 중인 경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핵심시설인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실증단지 온실과 연계 시설인 APC, 청년보육자리 등을 설치하는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이다.

경북도 농업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도는 지난 29일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ord Horti

55%(21명), 47기 67%(29명), 57기 78%(36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기 모집 때는 경쟁률이 5.7대1로 높아졌다.

영양군 전국 첫 '임대형 산채 스마트팜' 조성...

경북도는 지난 7일 산림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은퇴자의 귀산촌 안정적 정착을 위한 '4060+ K-산촌 드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다.

경북도는 사유림 면적 91만ha 전국 1위로 사유림 산주 수가 34만명이다. 감, 대추, 호두, 오미자, 송이, 마, 천궁 등의 임산물 최대 주산지이다. 하지만 대내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인 산촌은 108개 읍면으로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산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도는 산림면적 80%가 넘는 대표 산촌 지역인 영양에서 첫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명품 숲에 선정된 자작나무 숲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어수리, 천궁 등 전국 최대 산나물 생산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3개 유형의 마을을 조성한다. 소득형 모델로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한다. 영양군 일월면 일대에 2027년까지 120억원을 쏟아붓는다. 전국 최초로 임대형 산채스마트팜을 만들고 임대형 모듈러 주택 20동을 짓는다. 임산물로 고소득을 희망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에게 어수리 등 산채를 재배하는 스마트팜(0.2ha)과 임대주택 1동을 최대 5년간 임대한다. 어수리 시설재배 임업인과 협업해 귀산촌인에게 산채재배 기술을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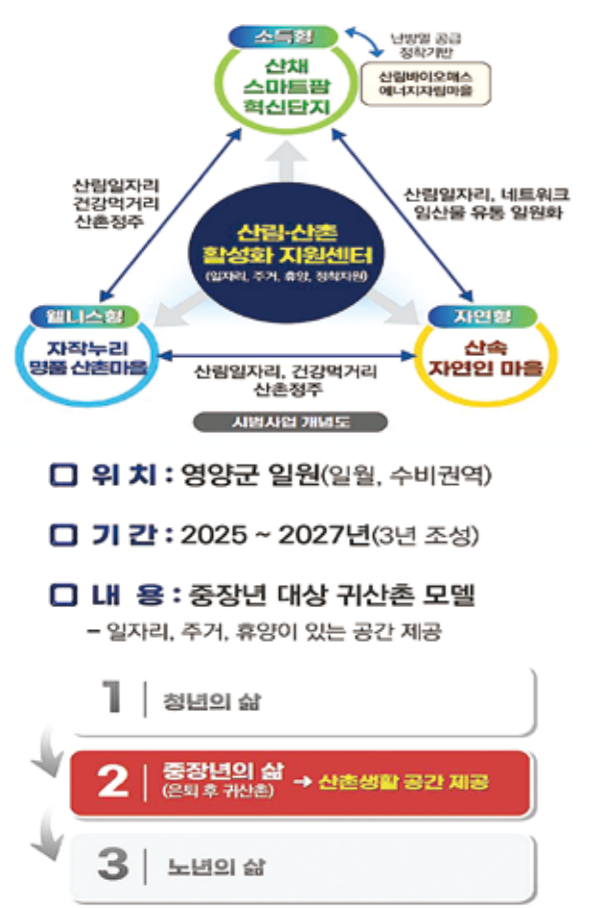
지역 인가가 함께하는 공동 브랜드와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 재배단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인접지에 숲가꾸기 등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립마을을 함께 조성해 난방열을 스마트팜에 공급하고 산림자원 이용을 통한 산림경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신규 산림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연 체험형 모델인 '산속 자연인 마을'을 만든다. 산채 재배 주산지인 일월산 일대의 공유림 300여ha에 자연인의

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3년부터 2년 간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기존의 농업방식에서 탈피한 혁신모델인 '들녘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들녘특구는 이모작 공동영농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다. 140ha의 논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작물 재배·수확기계 구입, 하계작물 선별·포장시설, 조사료열풍건조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 주시회사 행복농촌만들기'를 중심으로 180여 농가가 공동영농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벼농사 이모작 체제의 들녘에 동절기에는 조사료(IRG)와 밀을, 하절기에는 콩과 가루쌀을 심는 이모작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동계작물 수확과 하계작물 파종·직파 연시회를 개최했고, 동계작물(조사료·밀)을 230기량 생산해 모두 판매했다. 현재는 벼를 수확 중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콩 수확 후 동계작물인 조사료와 밀을 다시 파종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계작물은 450t 정도 생산하고, 동계작물과 합친 소득은 벼 단작 대비 1.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고버섯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60억 5천만원을 투입해 울진에 50동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다. 1년 차인 지난해는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하우스(194㎡ 내외) 20동을 신축했고,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 30동을 짓는다.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표고버섯 약 70t을 생산해 4억 4천만 원 가량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군은 친환경인증 획득으로 학교급식 납품, 계약재배 등을 확대하고 품질 규격화를 위한 공동 유통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별화된 표고버섯 먹거리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손병복 군수는 "앞으로 농업의 규모화와 첨단화, 기계화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도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명(42.3%) △2021년 222만명(46.8%) △2022년 217만명(49.8%) △2023년 209만명(52.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업 종사자 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 농가 수는 2013년 114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12월 99만9000가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스마트팜은 국내 농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힌다. 식품업계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또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20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스마트팜을 농업 분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팜 산업 수출 8억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를 목표로 육성한다.

경북도 혁신밸리 운영 불안정성

지난해 남영숙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장·상주)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을 촉구했다.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도의원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시 등 전국 4개 시·군에 위치한 혁신밸리 중 최대 규모로서 매년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0여 개 기관 35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우수 혁신밸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과연인력이 매년 줄어들고 2025년 이후 경북도

Center) 펙 반홀스테인(Puck van Holstein)CEO를 비롯한 웨스트랜드주 공무원, 스마트팜 관련 기업인 등 10명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첨단 원예산업에 대한 세미나, 컨설팅 등 교류행사를 했다. 행사는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 간 스마트팜 관련 교류협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상주시, 청년 창의도시로 변신

상주시는 국내 4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가장 큰 43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미래 농업 인재들이 첨단농업의 허브를 가꾸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이색공간도 상주의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 버려진 시멘트공장을 연간 18만명이 찾는 상주의 명소로 바꾼 이민주 명주정원 대표와 2019년 부산에서 귀농해 연간 15억의 표고버섯과 표고갑각수를 개발해 지난 4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김윤영 백두표고 대표가 그들이다. 상주시는 기업도시 대열에도 합류했다.

SK머티리얼즈와 아바코, 새빛캠 등 2차전지 기업의 급격한 투자유치를 계기로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했다. 지난 4년간 1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상주시는 올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로도 선정됐다. 세계모자페스티벌, 만화특화 도서관으로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활기가 가득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취임한 2020년 이후 4년간의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16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지금은 6, 7기 교육생 10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수료생 가운데 청년농 교육생은 27기는 31%(12명)이었으나 3기

삶을 희망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산속 자연인마을'을 조성한다. 임산물 생산 수익이 가능한 규모인 5~10ha의 공유림과 숲속의 집 1동을 최대 3년간 임대해 산 속에 거주하면서 산채, 두릅, 버섯류 등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고 채취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산촌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배 기술 교육, 임산물 판로지원, 지역민과의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임대 기간 정착에 필요한 준비와 지역의 산촌 생활·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 성공적인 귀산촌 정착이 기대된다. 웰니스형 모델인 '자작누리 명품 산촌마을'을 꾸민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 명품 숲을 활용해 단기 체류 숙박과 사무공간을 갖춘 지역 상생형 산촌 우드스테이와 웨케이션 공유형 사무실인 숲 오피스를 조성한다.

도는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영양군의 생활 인구가 유입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임산물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있는 산촌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에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대전환을 통해 도면적의 70%가 넘는 산림을 '돈 되는 산'으로 만들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반사업으로 도시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숲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중장년층의 로망을 현실로 바꾸는 귀산촌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스마트팜 표고버섯 성과

울진군이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

하고 농업 대전환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착착'

예천군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실시세탁회차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스마트농업혁신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지역본부, ㈜쌍씨앤씨건축사사무소 등 건축·토목·온실분야 실무 관계자를 포함한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42억원)을 투입해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72ha 규모의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4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 노하우를 쌓으며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추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함께 곤충양산업거점단지, 임대형 수직농장 등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조성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예천의 농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외에도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임대형 수직농장 등 총사업비 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말까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와 임대형 수직농장을 준공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완료한다. 김성용 기자

안동 카누연맹,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

안동시 카누연맹은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저출생 극복 성금 1백만 원을 29일 안동시에 전달했다. 기부받은 저출생 극복 성금은 추후 저출생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비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시 카누연맹은 안동댐의 보조댐에서 카누 체험장을 운영하며, 다소 생소한 스포츠인

카누를 시민이 보다 쉽게 경험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안동시 카누선수에게 대한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동시 카누연맹은 저출생 극복 성금 1백만 원을 기부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안동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송명주 기자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 추진... 디지털 접근성 강화

연말 스마트경로당 31개소 목표 4주간 시범 운영 뒤 서비스 실시 "디지털 소외 어르신들 지원"



영양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안재범 대안노인회영양군지회장 및 읍면분회장,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1천4백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군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사전규격, 입찰 공고, 제안평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지난 10월 7일 조달청은 한국정보기술주식회사와 최종 계약 체결했다.

올 연말까지 스튜디오 2개소, 스마트경로당 31개소를 구축 완료하여 4주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추진 일정을 보고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스마트기기와 친해지기 쉬운 방법으로 인지향상 놀이 기구인 "스마트 터치 테이블"과 비대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의 다양한 콘텐츠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문경 감홍사과, 수도권 소비자 홍보 행사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유통 양재점 시식행사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문경농협과 동문경농협 주관으로 지난 25-27일까지 3일간 농협 유통 양재점에서 문경 감홍사과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문경 감홍사과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경 감홍사과의 뛰어난 맛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문경시의회 이경걸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과 김대식 부시장, 그리고 문경시청 감홍사과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개회식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이 함께 펼친 문경 감홍사과 퍼포먼스는 내방객들의 주목을 받아 문경 감홍사과를 알리기에 충분했다. 문경 감홍사과는 당도와 과즙이 풍부하며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뛰어나 사과계의 명품으로 불린다.

타지역에서는 재배의 어려움으로 감홍 재배를 포기했지만, 문경은 약 30년 전부터 감홍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 400헥타르에서 연간 12000톤을 생산하며 전국 감홍사과 생산

량의 6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문경 감홍은 장미향이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행사장에는 문경 감홍사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긴 줄이 이어져 1인당 2박스씩 구입을 제한했음에도 첫날 준비한 물량이 조기 매진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5kg 규격의 문경 감홍사과 16,000박스가 판매되어 총 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관계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가 문경 감홍사과의 진가를 알게 되었을

영주시, 공약 이행 속도... 지난달 말 14개 완료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등급

영주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30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주요 공약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5개 분야 53개 공약을 최종 확정 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주요 완료 사업은 △영주 예산 1조 원 조기 추진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으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 △KTX-이음의 서울역 연장 운영

및 풍기역 정차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 확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처우 개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교육 지원 예산 대폭 확충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영주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보고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부진사업은 보완하고,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체계적인 공약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 관리의 성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전성기 기자

'찾아라! 김천 행복마을 22호' 행사 개최

봉사자들 맞춤형 자원봉사 제공 매년 2~3개소 마을 지정 운영

김천시는 지난 28일 감문면 문무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라! 김천 행복마을 22호' 행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사)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찾아라! 김천 행복마을사업'은 봉사활동의 사각지대인 읍·면 마을을 선정해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 증진 및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 대덕면 관기리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의 마을을 지정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모면 남산리(21호)에 이어 감문면 문무리를 22번째 행복마을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나눔이미용봉사단, 행복투게더봉사단, 뽕사모봉사단을 포함한 13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문패 및 태극기 달아주기, 이·미용, 물리치료, 체험활동, 공연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쳤다.

특히 행사가 끝난 뒤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상화 문무리 이장이 참석한 주민 및 자원봉사자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며 행복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마을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미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최대 월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구미시는 11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

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되며,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

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높은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의성교육지원청, 디지털·SW-AI 교육 나눔 한마당

학생들 SW·AI 기술 직접 체험 학부모·일반인 등 600여명 참석

경북의성교육지원청은 29일, 의성학생체육관에서 '2024 의성 디지털·SW-AI 교육 나눔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SW-AI 교육을 체험하며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총 14

개의 체험 부스를 통해 SW 및 AI 관련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 부스는 코딩-존(6개 부스), 메이커-존(6개 부스), 플레이-존(3개 부스) 등 총 3개의 존(ZONE)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코딩-존에서는 엔블2 장애물 피하기, 푸루푸루 로봇과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 체험, 카미봇 AI 도형 그리기, 네오모 협력 배틀 등이 진행되었다. 메이커-존에서는 플라로이드 촬영, 나만의 스티커와 도장 만들기, 자이로스코프의 비밀 등 창의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고, 플레이-존에서는 로봇마스터 스피드 챌린지, 드론 축구, AR 카드 레이싱 등이 제공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SW 및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교사 학부모도 역시 미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SW와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한 학생은 "평소 배우기 어려운 인공지능과 코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령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주 고향사랑기부제 담배품 업체 모집

상주시는 '2025년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배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

은 상주시에서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모집분야는 상주에서 생산·제조되는 농·축·임산물, 가공·제조물품, 관광서비스이며 담배품목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상주시 세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상주시의 특색있는 담배품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2025년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첫 '김천김밥축제'... 이틀간 10만명 찾았다

MZ세대 관광객 확보 성과
10만명의 인파 가능성 확인
지역 아닌 전국구 축제 노력
'오삼이 김밥' 편의점 출시 등

김천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24 김천김밥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축제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천김밥축제는 10만명이라는 김천시 행사 이래 전대미문의 기록을 했다.



■ 소규모 예산...10만명 관광객 방문 성과

소규모 예산이었지만 1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한데는 축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로 정체성 확보, 친근한 음식인 "김밥"이라는 소재, 지역 특산품과 관광지를 활용한 김밥개발, 친환경 축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구성 등을 손꼽고 있다.

김천김밥축제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김천 김밥축전대회, 이혜정 김천시 관광홍보대사의 김천김밥레시피, 김밥 인플루언스인 정다현 작가의 김밥 큐레이팅 등이 있으며, 제1회 김천김밥축전대회 금상을 수상한 "오삼이 김밥"은 오는 11월 전국 CU편의점을 통해 맛 볼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김밥축제로 큰 호응과 방문에 감사에 드린다."라며 "1회 축제의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겠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규모 예산으로 처음 시행하는 축제라 교통문제, 김밥재료 부족, 시스템관리에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김천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김천의 관광자원, 먹거리, 특산품 등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환경을 생각한 차별화된 전략

시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김천을 김밥전국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김밥축제로 기획해 큰 관심을 받았다.

소규모 예산과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했기에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먼저, 주 메뉴인 김밥그릇은 뽕튀기를 사용하여 김밥을 먹고 디저트로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였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 분식들은 모두 대화용기를 사용했다.

또한, 축제장의 메인 식음존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아닌 골판지를 활용한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각종 포토존과 스탠딩 테이블, 메인 놀이시설 모두 재활용 가능한 골판지를 사용했다.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은 대화용기 사용은 많이 보였지만 골판지를 활용한 테이블, 의자, 포토존, 전시대, 놀이시설은 어느 축제장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었다면 친환경 축제 컨셉에 대한 높은 평가를 했다.

무엇보다 뽕튀기 그릇 사용은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며 김천김밥축제의 킬러 콘텐츠가 됐으면 한다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주차문제, 김밥재료 조기소진 등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은 앞으로 김천김밥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 김밥 속재료와 단풍 연상하는 축제장

2024 김천김밥축제는 동화책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축제장을 구성해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김천시 인구만큼의 관람객이 찾은 김천김밥축제의 핵심 컨셉은 김밥 = 소풍, 슬로건은 김밥 전국 김천으로 소풍가자였다.

다소 협소한 길과 부족한 주차장으로 발길을 하기에 관람객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축제장을 보는 순간 미소를 띄게 했다.

단풍을 연상케하는 부스와 이색적인 포토존, 장관을 가을 꽃들은 김밥축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했다.

김천의 가을철이 가장 이쁜 황악산의 단풍과 한옥은 축제장을 더욱 돋보이게 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축제장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동화책 속에 들어온 느낌을 받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달성군 가을 풍경보며 ‘힐링’ 하세요”



가창댐 둘레길(광덕사 인근)



비슬산 천왕봉 역사



도동서원

달성군 대표적 관광 산책길 TOP3 도동서원 '400년' 은행나무 자태 비슬산, 친환경 셔틀버스 운영 가창댐 둘레길 드라이브 · 산책길

달성군의 면적은 428.37㎢로, 대구시에서 군위군 다음으로 가장 넓다. 대구의 서부에서 남부까지 폭 넓은 넓은 권역 덕분에 구석구석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유독 긴 폭염과 열대야로 숨 가쁘던 여름이 지난 지금, 달성군을 방문해 다양한 풍경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동서원'

구지면에 있는 도동서원은 조선 전기의 학자 한훤당 김굉필의 덕행을 기리는 서원이다. 2019년 7월에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전국 9개 서원). 보물로 지정된 중정당과 사당, 담장 사이를 거닐다 보면 한국적인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다. 서원 앞에는 수령 400년의 은행나무도 있다. 높이 25m, 둘레 약 8.8m의 거대한 나무가 황금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면 관광객은 더욱 많아진다. 올해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노란 은행잎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원 방문 시에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 넘실거리는 비슬산역새 만나요

비슬산은 참꽃군락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하지만 꽃이 진 후에도 볼거리는 가득하다. 특히 가을에 천왕봉을 가득 채우는 은빛 역새는 놓칠 수 없는 풍경이다. 일선연사가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한 대견사, 국내 최대규모 암괴류 역시 비슬산의 자랑거리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정상부까지는 개인 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대신 친환경 전기차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기준 5,000원으로, 편도 운행에 약 20분이 걸린다.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등산을 즐기며 정상부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호텔아젤리아) 또는 유가사 주차장에 주차 후 1-2시간 걸어 올라가면 된다.

■ 가창댐 둘레길 드라이브부터 산책

가창면 용계리의 가창댐 둘레길은 대구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다. 최정산의 아름다운 능선과 함께 푸른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산책에도 제격이다. 광덕사 인근 자동차도로 옆으로 조성된 둘레길은 일부가 데크로드로 이뤄져 더욱 쾌적하다. 둘레길 초입부엔 수변 전망대, 주차장, 벤치 등 편의시설이 있어 자전거 라이더 등도 쉬어가기 좋다.

더 긴 거리를 걷고 싶다면 올해 6월 새롭게 조성한 둘레길도 이용하면 된다. 오1리 마을회관에서 용계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3.4km 구간이다.

이달 23일 달성군에서 주최한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리기도 한 곳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봄의 참꽃군락지, 여름철 육신사 등의 배롱나무, 가을의 도동서원 400년 황금빛 은행나무, 겨울철 송해공원·비슬산의 빙벽 등 사계절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며 “오직 달성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빛나는 가을 풍경을 많은 대구 시민께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비슬산 가을풍경



도동서원 가을 은행나무



도동서원



가창댐 둘레길



가창댐 둘레길



비슬산 가을풍경

군민이 빛나는 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

성주군, 저출생 대응... 4대 핵심분야 추진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적 추진 감소 원인 분석... 맞춤형 정책 교육·청년·외국인 정착 지원 생활인구 유입으로 관점 넓혀

성주군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생 TF팀을 구성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45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도출하여 도비 포괄사업비 신청으로 사업 진행 중이고 성주군, 성주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사회단체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저출생극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 4S 지원방향 정립... 저출생극복 대응

출산·양육, 완전 돌봄, 교육 및 주거 정착 지원 등 4대 핵심분야와 결혼·출산 인식 개선 운동을 펼치며 4S 지원방향을 정립하여 저출생 극복에 대응하고 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첫째 아이 7,200만원, 둘째 아이 10,800만원, 셋째 아이 21,600만원, 넷째 아이 28,800만원을 지급하며,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준다.

올해 4월 경상북도 최초의 통합돌봄센터인 '24시 통합 돌봄센터'를 성주군에 개소하여,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극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4시 365 열린어린이집에서는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평일 야간(18:00~24:00), 주말·공휴일(09:00~18:00)에 돌봐주며, 24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을 평일 야간 및 주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저출생대응 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아이가 있어 행복한 돌봄 패키지, 행복Job 돌봄Go"에 선정되어, 지역내 틈새돌봄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이 면단위 돌봄취약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문제로 유출하는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원아민 영어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는 방학기간 1인 10만원의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영어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별고교육원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성주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영유아·성장기 아동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소내 소아청소년과 전공 공중보건의가 주 2회(화·목) 진료를 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가 관내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며, 무주택 청년 부부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성주읍 예산리 일원에 1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성주군에서 육아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민 등이 저출생 극복 캠페인과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저출생극복 성금모금에도 관내 많은 기업과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여 68백만원의 성금을 모금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청년·생활인구 유입 증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구사업 추진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증대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4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A등급 1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온세대플랫폼 구축, 신산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 로컬푸드판매장 조성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지난 10월 12일 ~ 13일 양일간 수륜면 수성리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2024 아이사랑 가족대축제"는 자연속에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으며, 풍성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주민인 로컬메니저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주제의 체류형 프로그램인 '어서와 성주는 처음이지'를 통해 타 지역에 사는 친구, 지인, 가족 등을 성주로 초대해 성주를 알리고 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로컬메니저들은 매월 네트워크 회의를 거치며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로컬메니저의 활동상황을 KBS-1tv '영남 라디오스타'에 방영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내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7커플을 매칭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나이스투 및 유! in 성주" 프로그램은 '와인과 에티켓', '애견과 산책', '향기 테라피'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결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남→연애→결혼→출산'의 순환 구조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작은 결혼식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매년 2쌍의 부부에게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웨딩 용품 대여, 결혼식장 인테리어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에게 7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

하고, 성주로 전입하는 사람에게는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 중장기적 인구정책과 대응 전략

성주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교육과 청년, 외국인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성주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성주군은 저출산, 청년세대 수도권 유출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과감한 투자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군으로도 도약하고자 한다.

그동안 단순히 출생과 전입에 따른 외형적 인구수 관점을 보완하여 생활의 질적인 관점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넓혀가고자 한다.

성주군의 특색을 살려 생활체육공간 확대 및 타지역 주민과 교류 확대, 귀향 희망자 물색 지원 등 생활인구 도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도재훈 기자



농지연금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농지연금

"나부터 청렴하GO! 우리 함께 청렴하GO! 모두 청렴하GO!"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KBC 신용 및민은 회계 (연속재무제표) 제 E-2021-0341980




250만 대구시민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폐는사고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30여년간 아껴온 대구시민의 당연합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위해
안동댐 1급수를 대구로 직접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로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수질 좋은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미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